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소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는 무명작가였던 카타야마 코이치를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사랑을 받았다.

특히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의 영화는 인생의 한 순간을 뚫고 지나간 날카로운 첫사랑의 추억을 세밀한 펜슬로 그려놓은 데서처럼 보여준다.

리츠코와의 결혼을 앞둔 사쿠타로. 그는 갑자기 리츠코가 자신의 고향으로 떠난 것을 알고 뒤따라 고향으로 내려간다.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던 것들은 학창시절 너무나도 깊게 사랑했던 아키와 수많은 추억들. 하지만 그 추억은 이루지 못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랑의 기억, 백혈병에 걸려 죽어간 아키와 그

로디를 그대로 빌려와 반주로 사용하고, 자신은 노래의 주선율만을 작곡했다. 아주 기발한 발상이다. 다시 말해 바흐의 음악이 반주가 되고 노래는 구노가 작곡한 멜로디가 되는 것이다. 결과는 훌륭하다. 마치 원래 하나의 작품이었던 것처럼 완벽한 아베마리아가 되었으며, 이 작품은 구노가 작곡한 그 어떤 곡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노의 '아베마리아'는 수없이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다뤄져 왔는데, 최근에는 첼로나 바이올린 편곡 버전이 오히려 더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원곡의 무게감을 지나칠 수는 없다.

원곡인 성악버전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음반은 미국의 흑인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음반 'Grace(은총)'이다. 다양한 작곡가들의 아베마리아를 비롯하여

가을 밤의 정취가 짙게 드리운 지난 27일 오후 8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시향(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의 정기연주회가 열린 이날 공연장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인솔교사를 따라 단체관람은 화순 도곡중학교 학생 56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난생 처음 음악회에 온 듯 교복차림을 한 남녀 학생들의 설레인 표정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단체관람처럼 다소 적은 규모이지만 이 학교 재학생 수가 56명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케일이다. 이들은 공연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이문정 교사(45·음악담당)와 함께 이날 오후 버스 2대를 대절해 광주에 왔다.

화순 도곡중학교 학생들이 광주문화회관을 찾은 까닭은 바로 광주시향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다. 광주문화회관(관장 정창재)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광주일보와 광주시향이 공동으로 마련한 '네번째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교사는 한달 전부터 단체관람을 예약했다.

이번 '친절한 음악회'에 대한 관심은 비단 화순도곡중학교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특히 유명 클래식평론가 장일범(KBS '장일범의 가정음악' MC)씨가 해설을 맡아서인지 이날 공연에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단위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1700여 석의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시세를 기록했다.

'천일야화-1001 Nights'라는 주제로 막이 오른 이날 광주시향의 음악회는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제1부는 고향곡 '신세계로부터', '현악 4중주 아메리카'와 더불어 드보르작의 3대 작품으로 꼽히는 '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번'.

이번 연주를 위해 독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첼리스트 요한 루드비히(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자로 출연, 광주시향과 환상의 음악적 교감을 보여주었다.

요한 루드비히는 독일 쾰른 출생으로 11

■해설이 있는 음악회 네번째 '천일야화'

클래식평론가 장일범씨 해설... 화순 도곡중 학생들 관람

광주시향, 獨자 활동 첼리스트 루드비히와 환상의 협연

살때부터 프랑크푸르트와 생상 첼로협주곡을 협연해 화제를 모은 '라이징 첼리스트'(rising cellist)다. 섬세한 테크닉과 절제된 표현력이 인상적인 그는 현재 독일 레겐스부르크의 필하모니, 갈스루헤 스타카카펠레의 수석 첼리스트로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의 동생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해설자로 나선 장일범씨는 명

쾌하고 재미있는 말솜씨로 '국민 음악평론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드보르작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제1~3악장의 내용과 특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관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마치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은 초보 관객의 귀도 열리게 할 정도였다.

제2부는 '아라비아 나이트'로 더 잘 알려진 설화집 '천일야화'를 소재로 한 러시아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러시아 음악 특유의 유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오리엔탈 로망'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지난 2009년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광주시향 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는 "지난 3월 취임한 후 몇차례 음악회를 열었지만 처음으로 이번 '해설'을 결정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교감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열려 클래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지난 27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시향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천일야화'에서 장일범씨가 작곡가 드보르작의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中 구노 '아베마리아'

슬픈 첫사랑의 기억에 바치는 노래

너의 마지막 목소리 테일을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전담하게 되는 리츠코. 결국 사쿠타로와 리츠코는 함께 아키의 유골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영화는 시작과 함께 곧장 구노의 '아베마리아' 피아노 편곡 연주를 들려보낸다. 영화의 종반부에 아키가 사쿠타로를 위해 채육관 피아노를 연주하던 곡도 바로 이 곡이다. 어린 시절의 아키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어른이 된 사쿠타로가 눈물을 흘리며 이를 듣는 장면은 이 영화의 손꼽히는 명장면 가운데 하나다.

수많은 작곡가들이 성모 마리아를 위한 노래 '아베마리아'를 작곡했는데 그 가운데 프랑스 작곡가 구노의 아베마리아는 독특하다. 구노는 '아베마리아'를 작곡하면서 대 작곡가 바흐가 남겨놓은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의 전주곡 멜

유명 성가곡들을 가득 담아 놓았다.

캐슬린 베틀은 말 그대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매력적인 소프라노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 해고당하고, 유럽 최고의 교향악단인 빈 필하모의 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취소해버린 일화는 유명하다. 갖가지 기행과 모난 성격으로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리고,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그녀의 노래는 다른 어떤 소프라노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미성으로 사랑을 받아 왔다.

정초한 아름다움과 가파르게 꺾여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호흡. 그녀의 아베마리아를 듣다보면,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던 아키의 슬픈 눈망울이 떠오른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광주 로얄발레단,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티핑 포인트 37.5' 연기상·무대미술상 등 4관왕

로얄발레단이 제20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경연에서 광주 대표로 출전한 로얄발레단은 '티핑포인트 37.5'(안무 박선희)를 무대에 올려 대상인 대통령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또 이번 작품에서 섬세한 연기를 보여준 오윤환·신승현씨는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이대엽씨는 무대미술상을 받았다.

수상작 '티핑 포인트 37.5'는 미약하고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큰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통해 삶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거대한 암반의 구멍을 뚫어버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처럼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의 티핑포인트를 찾아가는 인간군상들의 모습을 모던발레로 풀어냈다.

이번 로얄발레단의 수상으로 광주는 20회 동안 모두 여섯차례 대통령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골고루 대상을 수상한 점은 지역 무용계의 탄탄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대상 수상작은 광주발레단의 '아가야 이 세상엔'(4회), '가을소나타'(7회),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물.물.꽃잎'(12회), '레밍, 텀'(14회), 김미숙하나무용단의 '회·소'(16회)다. /김미은기자 mekim@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절동출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축적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